



포란이 필 때는
미쳐버린다는
古都洛陽

김윤기

▲ 낙양의 변화가. 지나가는 자동차도 없는데, 교통순경이 도로 중앙 신호대에서 있다. 자전거가 주로 시민의 교통기관 구실을 하고 있다.

삼국지를 읽어 본 사람은 낙양을 대번 알 것이다. 낙양은 중국의 3대 고도의 하나다.

기원전 770년, 주나라가 이곳에 도읍을 정한 이래, 9개의 왕조가 낙양에서 천하를 다스렸다. 그중에는 수나라, 당나라도 포함 되어 있다.

隋의 煬帝는 長安(지금의 西安)에서 이곳으로 도읍을 옮기며 거대한 궁궐을 지었다. 육일중천하던 수 양제가 고구려를 침범한 것도 이 시기였고, 살수에서 을지문덕장군에게 패해, 결국 나라까지 결단 났던 고사도 이곳 낙양에서 있었던 역사의 한토막이다.

낙양은 중국 중원땅의 한복판이다. 따라서 중국을 다스리려면 먼저 중원을 평정해야 하고, 중원을 지배하려면 낙양을 장악해야 했다.

武天武后는 낙양을 「神都」라고 불렀다.

그러나 낙양은 정치도시로서 보다 예술·문화도시, 학문도시로서 발전했다. 이 백, 두보, 백낙천 등이 낙양에서 활동한 것만 봐도 알 만하다. 노자도 낙양에서 주로 학문 활동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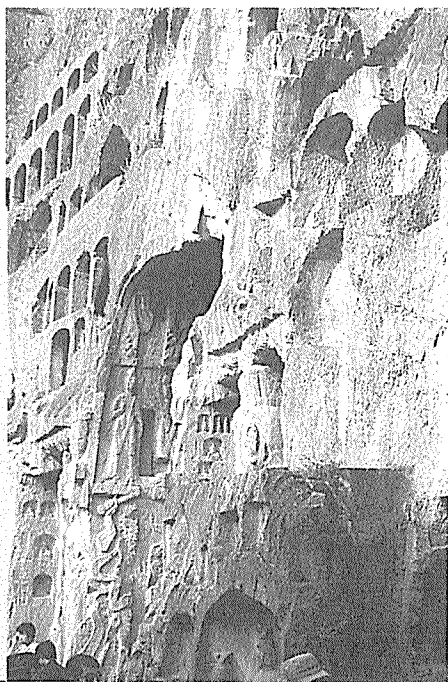
그렇게 보면 龍門石窟이 낙양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용문석굴은 거대한 석굴群이다. 이 석굴이 자그마치 1,352개가 있다. 석굴이라면 우리는 석굴암을 연상한다. 용문석굴은 수없이 많은 석굴암 같은 것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고 생각해보면 된다.

석굴 뿐 아니라 단집(龕)도 750개나 된다. 단집은 크기가 작은 액자만한 것도 있다.

석굴이나 단집 안에는 어김없이 불상(佛像)이 있다. 불상은 큰 것은 높이가 17cm나 되는 巨佛도 있다(奉先寺洞). 깎아지른 절벽에 큰 동굴을 뚫고, 그냥 절벽에 불상만 조각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겨우 2cm 크기,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석불도 있다.

賓陽3洞 석굴은, 굴 하나 파는데 80만명이 동원되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고, 萬佛洞 석굴에는 15,000개의 불상을 벽과 천정에 가득히 조각했다. 가장 오래된 동굴은 古陽洞이다. 이 석굴은 그 예술성이 뛰어나 「용문 20품」중 19품이 이 안에 있을 정도다. 藥方洞도 있는데, 140종에 이르는

무덤처럼 된 용문석굴. 중국의 3대 석굴의 하나이며, 세계적인 문화재인 이 용문석굴은 홍위병 시위 때 모두 파괴되었다. 종교를 보수 잔재라고 매도, 불상을 대부분 훼손시켰다.



처방 내용이 벽에 조각하고 있다.

용문석굴을 파기 시작한 것은 5세기 중엽부터다. 北魏가 대동에서 낙양으로 천도하면서 석굴을 파기 시작했다. 석굴파기 작업은 당나라 말기까지 거의 4백년간 계속되었다.

중국에는 석굴이 많다. 너무 많아 그 수를 헤일 수 없을 정도다. 이처럼 많은 석굴 중 3대 석굴로 敦煌의 莫高窟과 大同의 雲崗석굴, 그리고 낙양의 용문석굴을 꼽는다. 막고굴과 운강석굴은 벽화의 보고(寶庫)로 알려져 있는 것에 비해 용문석굴은 조각의 보고로 알려지고 있다.

불상을 살펴보면 모두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奉先寺洞의 대불도 빙긋이 미소를 띄고 있는데, 則天武后가 그 모델이란 설이 있다.

약 2km나 되는 거대한 바위산의 한쪽 기슭에는 찬란하고 황홀한 동굴 조각 예술품 뿐 아니라 아름다운 비문조각이 함께 새겨져 있다. 비문의 수는 3천6백여개나 되며, 「용문 20품」 속에 포함된 예술적 비문도 있다.

용문석굴은 중국의 자랑이며 세계적인 문화재다. 그런데 이 석굴속의 불상의 얼굴이 대부분 깨어져 있다. 도끼와 망치로 일부러 때려 부순 것이다. 이 석굴을 때려 부순 것은 홍위병 시위대들이었다. 그들의 표면상 이유는 간단했다. 「봉건잔재」 소탕이 명분이다.

그러나 이 순간적인 흥분과 오phan은 2500년이나 된 인류의 문화재를 손상시킨 것이다. 용문석굴은 비록 그 위치하고 있는

곳이 중국땅이지만 중국인의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일부 이념집단인 홍위병의 것도 아니다. 이 문화재는 인류의 것이며, 지구의 것인 것이다.

용문석굴 입구에선 흙으로 만든 당삼채 모형을 팔고 있었다. 말, 낙타 모양의 당삼채가 한개에 5원(약 780원)이었다. 너무 싸서 함께 샀었던 일행이 모두 한개씩 샀는데, 깨어질까봐惶恐으로 싸고 손가방에 넣고 들고 다니며 조심조심 다루었다. 불과 5원짜리 기념품도 깨지면 아깝다.

그런데 다시 재건할 수 없는 귀중한 역사적 문화재를 광란의 시위군중이 무자비하게 깨어버린 것이다. 그들의 정치적 사상적 이념은 별개로 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한 벌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 용문석굴을 다녀가는 사람이면 누구든 한마디씩 던지는 말이고, 탄식이고, 저주다. 차라리 안본 것만도 못한 쓰라림이 두고두고 가슴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낙양에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절이라는 白馬寺가 있다. 後漢시대(기원전 68년)에 창건되었다니 2천년이 더 지난 고찰이다. 물론 원래의 건물은 北魏때 불타 없어지고 현재의 건물은 明代에 와서 수복한 것이다. 이 절은 인도풍의 건물로 元代에 조각된 18羅漢像이 정전인 대웅전 양쪽에 새겨져 있고, 인도의 승려 竺法蘭과 攝摩騰의 무덤이 경내에 있다.

정문에서 동쪽으로 3백개쯤 떨어진 곳에 돌로 지은 齊雲塔이 있다. 당나라때 세워진 이 탑은 손벽을 치면 그 소리가 개구리 울음소리로 변해 메아리쳐 돌아 온다.



▲ 한산한 거리 풍경. 네거리 한 복판으로 걸
어가는 사람이 보인다. 건너가는 길 표시
도 없다.

삼국지의 영웅 關羽를 모신 사당 關帝廟
가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 이곳서는 關林
으로 부르고 있다. 關羽사당은 중국각지
수없이 많다. 그러나 이곳의 사당은 전국의
관우사당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곳
에는 關羽의 首塚이 있어 더욱 유명하다.

시내에는 원대의 시가지가 일부 남아있
다. 토백에 뚫린 입구로 들여다보면 좁은
골목길이 있고, 남은 집들이 보인다.

낙양은 「牡丹花城」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다. 수나라때인 1천여년전부터 모란꽃을
키우고 가꾸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시내에는 모란원(牡丹園)이 20개소나
있으며, 당나라 때부터 1백여종의 모란을
재배했고, 지금은 2백여종이 넘는다. 특히
왕성공원의 모란은 유명하다. 5천여 그루
나 되는 모란이 일제히 개화되면 정말 장

관이다. 시인 白居易는 『꽃이 피고 꽃이
지기까지 20일, 城內사람들은 그 사이 모
두 미친듯이 소란하네』라고 시를 읊었다.

그러나 오늘의 낙양은 인구 80만의 작은
공업도시로 탈바꿈했다. 주변에는 4백여개
나 되는 공장이 있고, 중국 최초의 트랙터
공장도 이곳에 있다.

찬란했던 삼국시대와 주나라, 당나라때
의 유적은 거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이 되었
다. 시의 동쪽에 東周古城, 강 양변에 수·
당나라의 洛陽老城, 한나라·진나라·위
나라 시절의 漢魏古城이 일부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이다.

〈필자 = 해외의학 교류회장 · 최신 여행
정보 발행인〉